



박인비

박인비, 내친김에 메이저 8승 가즈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21승을 달성한 박인비(33)가 내친김에 메이저대회 8승 고지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4월 1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 다이아 쇼 코스(파72)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 달러)에 출전한다.

21번째 우승을 달성한 기아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치고 박인비는 "ANA 인스피레이션에 대비한 워밍업"이라고 말했고, 우승 인터뷰에서도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 욕심을 꼭 집어서 밝힐 만큼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올해 박인비의 시간표에는 올림픽 2연패가 정점이지만 5년 넘게 멈춰선 메이저대회 우승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인비는 2102년 이후에는 2016년과 2019년을 빼고선 해마다 우승했다.

한국 선수 메이저 최다승(7승) 기록을 지닌 박인

ANA인스피레이션 내일 개막 한국선수 3년 연속 우승 도전 이미림 타이틀 방어 여부 관심 고진영·김세영·전인지 등 출전

비는 그러나 2015년 브리티시여자오픈 이후 6년째 메이저 우승이 없다.

ANA 인스피레이션은 다른 메이저대회와 달리 미션힐스 CC 다이아 쇼 코스에서만 열린다. 경험 많은 박인비에게는 유리하다.

전장(6763야드)이 길지만, 영리한 경기 운영과 그린 플레이가 장점인 박인비의 경기 스타일에도 잘 맞는 편이다.

전장 6609야드에 미션힐스 CC 다이아 쇼 코스와 레이아웃이 많이 닮은 아비바라 골프클럽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했다는 사실도 박인비에

게는 고무적이다.

박인비는 미션힐스 CC 다이아 쇼 코스에서 지금까지 14차례 대회를 치러 한 번도 컷 탈락을 겪지 않았고, 6번이나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는 2013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2018년에는 1박 2일 연장전 끝에 우승을 내준 기억도 있다.

ANA 인스피레이션은 우승자가 18번 홀 그린 옆 '포피의 연못'에 뛰어드는 전통이 있다.

이 연못에 뛰어든 한국 선수는 무려 6명이다.

특히 최근 2017년 유소연(31), 2019년 고진영(26), 작년 이미림(31) 등 최근 4년 동안 3명의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2018년 연장전에서 아쉽게 진 박인비를 포함하면 4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 경쟁을 벌인 셈이다.

한국 선수의 3년 연속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서서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계랭킹 1

위 고진영과 2017년 챔피언 유소연, 그리고 부활한 김효주(26)가 눈에 띈다.

기아 클래식에서 상위권에 오른 셋은 "목표는 ANA 인스피레이션"이라며 강렬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아 클래식에서 실격당한 아쉬움을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풀겠다는 전인지(27)의 출사표도 눈길을 끈다.

최근 미션힐스 컨트리클럽 회원이 된 전인지는 일찌감치 대회장으로 이동해 코스 점검에 나섰다.

이미림의 타이틀 방어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회 2연패는 2001년~2002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한 번밖에 없다.

박인비에 세계랭킹 2위를 내준 김세영(28)의 반격도 지켜볼 대목이다.

올해 초반 3차례 대회에서 우승을 나눠 가진 제시카와 넬리 코르다 자매, 오스틴 언스트(이상 미국)는 시즌 2승째를 놓고 박인비와 경쟁한다.

/연합뉴스

김시우, 2년전 역전패 설욕 나선다

PGA 텍사스오픈 내일 개막

톱랭커들 마스터스 준비차 대거 결장

김시우(26·사진)가 2년 전 역전패의 아픈 기억이 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총상금 770만달러)에 다시 출전해 설욕을 노린다.

김시우는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 오크스 코스(파72·749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 출전한다.

김시우는 2019년 이 대회에서 1~3라운드 선두를 달리며 절호의 우승 기회를 잡았지만, 마지막 4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해 공동 4위로 마쳤다. 우승자 코리 코너스(캐나다)에게 5타나 뒤졌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돼 설욕 기회가 없었다.

올해 김시우는 흐름이 좋다.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약 2주 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9위에 올랐다.

대진도 괜찮다. 많은 톱 랭커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4월 8~11일)에 집중하기 위해 텍사스 오픈을 건너뛰기로 했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도 텍사스 오픈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기권했다.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텍사스 대학을 나온 조던 스피스(미국)가 가장 강력한 우승 경쟁자다.

스피스는 2월 피닉스 오픈 공동 4위, AT&T 페블비치 프로오픈 공동 3위,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공동 4위 등 올해 출전한 7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톱10에 들며 상승세를 탔다.

2019년 우승자 코너스는 2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2년 전 코너스는 월요 예선을 거쳐 깜짝 우승을 차지하고, 마스터스 티켓까지 거머쥔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텍사스오픈 우승자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는다. PGA 투어 대회 우승을 통해 마스터스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10년부터 마스터스에 꾸준히 출전한 리키 파울러(미국)가 11년 연속 마스터스에 진출하려면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만형 최경주(51)와 강성훈(34), 안병훈(30), 이경훈(30), 노승열(30)이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코로나에...소년체전 종목별 주관대회로 대체

올해로 50회를 맞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종목별 주관 대회로 대체된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년체전을 종합대회가 아닌 각 종목 협회·연맹 주관 대회로 치른다고 30일 발표했다.

소년체전은 해마다 5월 중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열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열기로 한 제10회 전국체전을 1년 순연하면서 올해 소년체전 개최지는 없는 상황이다.

체육회는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로 최근 코로나19 상황, 훈련 부족에 따른 선수들의 부상 우려, 전국규모 대회인 만큼 참가 선수단과 개최지 주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소년체전을 종목별 주관 대회로 열 수 밖에 없다고 뜻을 모았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마이애미오픈 16강전에서 오사카 나ومی가 엘리서 메르텐스(17위·벨기에)를 상대로 강력한 포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오사카는 메르텐스를 2-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오사카도 화났다...“아시아 혐오 그만해야”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로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오사카 나ومی(24·일본)가 아시아계 혐오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사카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버블이나 일본 만화, 떡, 스시, 말차 등을 좋아하는 만큼 아시아인을 사랑하면 어떨까"라며 "어떤 문화를 즐기면서 그것을 만들어낸 인종을 공격하고 차별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적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등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가 세계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사람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자'(stopasianhate)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런 것을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이런 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사카는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커졌을 때도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지난해 9월 US오픈 때는 매 경기 인종 차별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트에 등장했다.

자신을 '흑인 여성'(Black Woman)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 오사카로서는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에도 주저하지 않고 대응한 셈이다.

오사카는 2018년과 2020년 US오픈, 2019년과 올해 호주오픈 등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네 차례 우승했다.

2019년 호주오픈을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적 선수가 남녀 테니스 단식 세계 1위가 된 것은 이때 오사카가 사상 최초였다.

아시아 국적 선수의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은 2011년 프랑스오픈과 2014년 호주오픈 리나(중국) 이후 오사카가 두 번째다.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오사카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마이애미오픈(총상금 326만190달러)에 출전 중이다.

30일 열린 16강전에서 엘리서 메르텐스(17위·벨기에)를 2-0(6-3 6-3)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오사카가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하고 현재 세계 1위 애슐리 바티(호주)가 4강에 오르지 못하면 4월 초 세계 랭킹에서 오사카가 1위가 된다.

바티가 4강에 진출하면 오사카는 우승해야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다. 또 바티가 결승까지 오르면 오사카의 결과와 관계없이 바티가 계속 1위를 유지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자산어보, 최면
3관	자산어보, 아무도 없는 곳, 최면
4관	자산어보
5관	자산어보
6관	고질라 VS. 콩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커뮤니티	미나리, 해질렵
8관 씨네커뮤니티	커피 오어 티, 스파이의 아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5: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